

가출소녀유인 나체쇼 가르쳐

출연료등 2億臺 가로 채

89. 3. 15

조음합법률신보 지사장등 2명영장

서울관안경찰서는 15일 여

고생등 가출소녀들에게 연예

인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

인위 나체쇼를 가르쳐 술집

에 스트립걸로 소개해주고

업주들로부터 반입 출연료등

1억7천여만원의 가로채 중

합법률신보 등부지사장 南沄

씨(44·서울城東구紫陽동65

9)를 미성년자악취유인등협

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유흥업소에서

10대소녀들을 유인해와 감금

폭행한뒤 속칭 「출판소녀」를

가르쳐온 南씨의 내연의처

朴美順씨(22·全南昇州군黃田

면大峙리331)도 같은혐의

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南씨는 지

난해 12월27일 차씨가 서울

江東구千戶동의 한 다방에서

유인해온 金모양(16·D여고

1년)을 江東구城內동456

자신의 사무실에 감금한뒤

음란비디오 7萬여개 제작판매

4명 구속영장 신청

서울중대문경찰서는 15일

음란비디오테이프 7만7천

여개를 제작, 판매해온 金世

스트립쇼를 가르쳐 지난1월
중순 全南順天시의 U스텐
바에 출연시켰으며 업주들
터 받은 한달치 출연료 1배
20만원을 가로채는등 87년8
월부터 지금까지 같은수법으
로 20여명의 10대소녀를 저
국의 유흥가에 넘겨주고 1
억7천여만원의 가로채왔다
는 것이다.

榮씨(41·서울東大門구典農1
동652)와 중간상인 車在
玖씨(28·東大門구龍頭1동
39)등 4명을 음란에 관하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